

노후대비비용 세제지원 저축상품 ‘찬밥’

저금리 기초속 세제혜택 줄고 가입 까다로워 연금저축·재형저축·소장펀드 등 판매 시들

노후대비 수단인 사적연금과 세제적격 저축 상품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저금리 기초속 낮은 수익률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세제혜택을 줄이고 가입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연금저축 판매 실적은 최근 1년 새 감소했다.

지난해 5월 4천89명이 44억9천만원을 가입한 연금저축은 올해 4월 3천964명이 9억3천만원을 가입했다. 1인당 가입액은 110

만원에서 23만원으로 약 5분의 1이 됐다. 연금저축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면서 일부 주식으로도 운용된다.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원까지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 연금저축 판매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올해부터 확 줄어든 세제혜택이 꼽힌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경우 96만원(400만원의 24%)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48만원(400만원의 12%)만 세금에서 깎아준다. 김평준 우리은행 세무팀장은 “당장 0.1~

0.2% 수익률을 더 내도 세제혜택의 차이를 메울 수 없다”며 “세제혜택 변경이 판매 부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돈 모으기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7년간 돈을 부으면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되자마자 가입자 133만명을 끌어모은 재형저축은 5개월 뒤 168만명으로 증가세가 지지부진하다. 올해 3월 말 155만명으로 감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금융상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재형저축의 ‘대안’ 격으로 만들어져 내

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도 관심을 덜 받는 모습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올해 3월17일 출시된 소장펀드는 약 2주일 만에 105만4000명이 141억원을 가입했지만, 지난달에는 1개월 동안 가입자 수가 107만2000명에 그쳤다.

소득공제 혜택에 견줘 10년 간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부담 탓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10년 만기 상품이 가입하느니 1년 만기 정기예금을 10차례 가입하는 게 한국의 투자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유럽중앙은행 호재에... 코스피 상승 탄력 기대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지루한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세는 유지되었지만 지난 달에 비해 약화되었고 투신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기관 순매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3주동안 40pt 내외의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답답한 모습이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그룹주와 그룹지배구조 수혜주에 대한 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다. 지난 3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 삼성그룹주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며 이견의 회장 임원과 삼성SDS 및 에버랜드 상장 발표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스권 상태에서 지속적인 펀드 환매압력으로 운용의 폭이 좁아진 기관 투자자들마저 삼성그룹주와 그룹지배구조 수혜주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하면서 여타 종목군에 대해서는 펀드 내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2,000선 전후로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도 주가차별화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정의선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벌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난 4월 현대엔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출범한 것이 3세 승계작업의 시발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추진이나 현대건설과의 합병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승계를 위한 자금확

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 서 해당종목들의 주가가 단기 급등해 단기적인 접근보다 지배구조 변화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관련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은행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를 현재 0.0%에서 -0.10%로 내렸다. 초단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낮춘 것은 세계 주요중앙은행 중 최초 사례다. 금융시장에서는 예상되었던 금리인하 효과보다 미국 FOMC가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과 유사한 4천억 유로 규모의 LTRO(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 도입과 향후 자산매입 가능성을 밝힌 점이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 선물옵션 만기 이후 코스피지수는 다시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준에서 PBR 1.0 배는 1950포인트 수준이다. 따라서 추가 조정시 1950포인트에서 매수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보이며 6월 중순 이후 투신권의 매도압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매수가 다시 증가하며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부지점장〉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기준 ‘최종 사용월’로 변경

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의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을 ‘판매월’에서 ‘최종 사용월’로 변경한다.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카드 소멸 잔액을 모두 자신들의 수입(낙전수입)으로 삼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오는 7월1일부터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기준을 ‘판매월’로부터 5년 경과’에서 ‘최종 사용월’로부터 5년 경과’로 변경한다.

삼성카드 역시 올해 초 기프트카드에 대한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바꿨고,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중이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기프트카드의 경우에는 ‘판매월’로부터 5년’ 뒤에 미사용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KB국민카드를 비롯한 일부 은행과 카드사는 ‘유효기간 이후 5년’을 소멸 시효로 정해 최대 10년간 고객들이 해당 잔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기준을 바꾼 것은 미사용잔액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낙전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카드사들이 낙전 수입으로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각 카드사에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을 변경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최근 오만원권이 실종됐다. 시중에선 오만원권을 찾아볼 수 없고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선 현금인출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5만원권 실종사건 5년새 5배 플러... 시중화폐 3분의 2 차지 수표 대체 효과... ‘검은 돈’ 거래 문제점도

5만원권이 발행 5년만에 시중 유통화폐 잔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보급이 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화폐 이용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발행이 결정된 5만원권은 2009년 6월23일 처음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해 만 5살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대체를 비롯한 화폐의 제조·유통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으나 지하경제의 수단인 ‘검은 돈’으로서도 기능하는 등 문제점도 불거져왔다.

◇5년만에 시중 화폐의 3분의2 차지= 첫 발행 이후 5만원권의 수요는 확대일로 길을 걸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행 첫해인 2009년말 5만원권의 시중 발행잔

액은 9조9230억원에 기록했다. 이어 2010년 18조9962억원, 2011년 25조9603억원, 2012년 32조7665억원, 2013년 40조6812억원 등 한해 7조~8조원 규모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화폐(기부증환 제외) 중 5만원권의 연발 발행잔액 비중은 2009년 26.6%, 2010년 43.9%, 2011년 53.3%, 2012년 60.3%, 2013년 64.2%로 높아졌다.

올해 4월말에는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43조8천510억원으로, 전체 화폐 잔액의 65.9%를 차지했다.

5년만에 그야말로 국내 화폐 구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장수로는 8억7702만장으로, 1인당 17.8장가량 보급돼 있는 셈이다.

5만원권 발행 이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때 직장인들의 비상금 수단이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감소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8년 하루 평균 결제규모가 374만2000건에 달했다.

◇지하경제 수단 등 논란은 지속= 애초 5만원권이 나올 때부터 음성 거래 등 지하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차떼기’에 사용된 사고상자에는 1만원권으로 약 5억원, 007가방에는 1억원이 들어갔지만 5만원권을 사용하면 사고상자에는 25억원, 007가방에는 5억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억원을 전달하려면 007가방 1개가 필요했지만 5만원권을 사용하면 양주



박스 1개로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지하경제 수단으로서 5만원권이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5만원권의 환수율 하락, 개인연금 시장의 확대 등 지하경제 확산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NAVER 광고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음성각**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탄다, 주스)

드림이음 최상급 살코기, 풍부한 육질, 부드럽고 이삭이완만, 송이버섯과 치즈의 허브 숙성, 친환경 무공해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랑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